

KCM WOOD
케이엠글로비스

Vintage



O L D O A K

European reclaimed oak / Wine press boards, beams & screws
Railway transoms & wall panels / European rustic oak



특수목 (북미, 유럽, 호주산)
유럽산 오크 고재, 와인프레스 고재
트랜섬, 빈티지 K패널

KIM WOOD

케이엠글로비스

22769 인천광역시 서구 북항로45번길 26

T. 032-710-4374 F. 070-7585-4374

自然을 탐하다

"자연"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사람의 힘을 더하지 않은 지질로 된 그대로의 현상]입니다.

자연의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나무' 혹은 목재는
인공적인 소재로 둘러싸인 우리의 삶과 생활공간을
조금이나마 윤택하고 따뜻하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의 소재인 목재를
우리 일상에 친근한 재료로 쉽게 녹여 낼 수 있도록
새로운 시도와 제안을 끊임없이 추구하려고 합니다.

*Reclaimed
Recycled &
Recreated*

European Reclaimed Oak

유럽산 오크 고재(古材)는

최소 80년에서 200년 이상 오래된 가옥이나 건축물등에서 해체되어 얻어지며,
소재 자체에 자연스럽게 녹아 있는 오랜 세월의 흔적을 인위적으로 흉내 내기는 어렵습니다.
오크 고재의 특성상 유럽이나 미국등의 제한된 지역에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건물의 뼈대, 즉 구조용재로 사용된 빔(Beam)과 벽체에 주로 사용된 판재(Plank)
그리고 헛간등의 소규모 건물에 얇은 벽체나 바닥재로 사용된 반우드(Barnwood)의 형태로
다양한 두께와 길이로 공급이 가능합니다.
가구제작, 구조용빔으로 사용은 물론, 제재나 물딩의 2차 가공으로
다양한 실내 인테리어용 소재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고색창연한 고유의 멋을 오롯이 느낄 수 있는 오크 고재는
우리의 집과 사무실, 상업공간을 더욱 아름답고 아늑하게 변화시킬 수 있고
최근 트렌드인 도시재생건축에 완벽한 목재 소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판재 (Planks)

건물의 벽체에 주로 사용이 되었던 소재입니다.

다양한 폭과 길이로 공급이 되고 오크 고재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소재입니다.

가구재, 인테리어 소품재로 적용이 가능하며 얇게 재가공 되어 바닥재(Flooring)나 벽체용 인테리어 자재(Wall panel)로 사용 시 아름다운 연출이 가능합니다.



PLANK규격 (두께:6~15cm)

S (Short) 2m 이하

M (Middle) 2.1~2.3m 이내

L (Long) 2.4~3m 이내



Beams

기둥 (Beams)으로 사용되었던 고재는 그 자체의 예스러운 느낌으로 복원 건축 및 호텔, 와인바, 고급음식점 등의 오래된 느낌의 빈티지인테리어와 재생건축을 위한 최상의 소재입니다.

다양한 규격으로 공급됨은 물론, 내구성도 유지되어 있어 건물 내부의 인테리어 구조재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 외, 도어 및 프레임, 가구재로 훌륭하게 사용 할 수 있습니다.



BEAM 규격 (길이: 2m 이상)

S (Small)	10~14cm (Square)
M (Medium)	14~16cm (Square)
L (Large)	16~20cm (Square)
Special	20~25cm (Square)



Barnwoods

반우드 (Barnwoods)

창고나 헛간등의 외부 벽체나 건물의 바닥재로 사용되었던
부분으로 고재 판재(Plank)에 비해 상대적으로 얇은 소재입니다.
기본적인 소재 규격은 두께 15~30mm 내외, 폭 10cm이상
그리고 길이는 1m 이상으로 공급이 됩니다.
선반, 가구재등의 용도로 다양하게 활용 가능하며 2차 가공으로
벽체나 도어 마감재용 패널로 제작 공급될 수 있습니다.



BARNWOODS규격

두께 : 10mm 내외

폭 : 8/10/12/14/16/18cm

길이 : 1~2m 내외 (random)

* 주문 생산 시스템



Wine Press

A photograph of a large, traditional wooden wine press. The structure is made of thick, weathered wooden beams and planks. A green metal door or panel is visible in the background, partially obscured by the wooden frame. The lighting is natural, highlighting the textures of the wood.

Wine press는

와인을 대량 생산하기 위해 포도즙을 짜던 목재로 만든 기계로 중세 이후, 유럽에서 사용이 되어 왔습니다. 포도즙을 짜던 틀부분에서 얻어지는 와인프레스보드, 포도를 압착하기 위한 대형의 지렛대로 쓰인 와인프레스 빔과 와인프레스 스크류등의 고재 소재가 공급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고재(古材)라고 하면 가옥이나 건물의 해체 시 얻어지는 것으로 여겨지지만 와인프레스에서 해체 된 와인프레스보드, 빔, 스크류등은 기존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형태의 고재입니다.

이런 특별한 와인프레스고재는 건축 및 설계, 가구제작, 인테리어 관련 회사나 담당자들에게 새로운 소재에 대한 아이디어와 고재를 활용한 디자인 개발에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와인프레스보드 (Wine press boards)

포도즙을 짜던 와인프레스의 사각 틀을 구성하는 프레임과 바닥재로 사용되었던 소재로 가옥에 사용되었던 판재(Plank)에 비해 두께가 비교적 균일하고(평균 6~8cm) 판면 상태가 양호하여 테이블 상판용 소재로 사용하기 적합합니다.

오랫동안 포도즙이 와인프레스보드에 침착되어 마감 가공 시, 독특한 색감과 질감이 나타납니다.



WINE PRESS BOARDS 규격

두께 : 5~10cm 내외

폭 : 10cm이상 (최대 50cm 미만)

길이 : 1.5~3.6m

* 주문 시 전화 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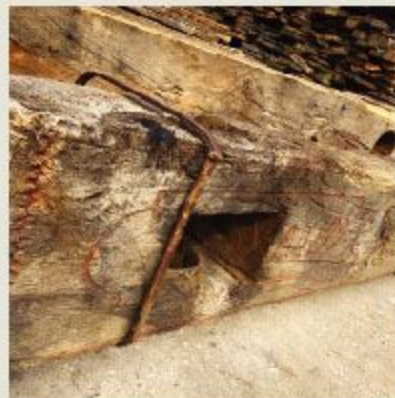
Wine press beams

와인프레스빔 (Wine press XX large beams)

와인프레스에 사용된 압착용 가로빔으로 일반 가옥에 사용되었던 구조용 빔에 비해 훨씬 크고 와인프레스 하나에 한 개의 빔 만이 있기 때문에 희소성이 매우 높습니다.

종종, 빔 측면에 조각된 글씨나 그림등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소유자 혹은 제작자의 이름이나 제작 연도에 관한 정보를 제공 하기도 합니다.

고급 인테리어용 소재로 사용 가능하고 특별한 가공 없이 그 자체로 훌륭한 가구나 장식품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WINE PRESS BEAMS 규격

규격 : 40~55cm (Square)

길이 : 4.7m/ 4.9m/ 5.0m/ 6.2m

* 주문 시 재고 문의



와인프레스 스크류 (Wine press screws)

와인프레스 가로빔의 높낮이를 조절하는 스크류로 와인프레스의 대부분은 오크(White oak)로 제작 되었지만 스크류 부분은 조각이 잘 되는 수종 중의 하나인 배나무(Pearwood)를 사용하였습니다. 숙련된 목공 장인들에 의해 일일이 수작업으로 제작 되었으며 오랜 시간의 흔적이 목재로 된 스크류의 나사산 하나 하나에 묻어나 그 자체로 훌륭한 인테리어 오브제나 가구용 소재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WINE PRESS SCREWS 규격

길이 : 2.4~3.3m

* 주문 시 재고 문의



와인프레스... 고재(古材) 그 이상의 의미.

포도즙을 짜던 와인프레스의
사각 틀을 구성하는 프레임과
바닥재로 사용 되었던 소재로 가옥에
사용되었던 판재(Plank)에 비해
두께가 비교적 균일하고
(평균 6~8cm)

판면 상태가 양호하여
테이블 상판용 소재로 사용하기
적합합니다.

오랫동안 포도즙이
와인프레스보드에
침착되어 마감 가공 시,
독특한 색감과 질감이
나타납니다.





WINE PRESS

19.FEB.04.

와인프레스 1904는 호리젠타프레스(Horizontal wine press)

형태로 화이트 오크로 제작된 사각의 목재 틀 안에 원통의 바구니가 올라가고

그 위에 포도를 압착하기 위해 거대한 빔(레버), 스크류 및 돌(stone)로 된 추가 구성 되어 있습니다.

와인프레스의 대부분은 화이트오크(White oak)로 제작 되지만 스크류의 경우 조각이 용이한 목재를 별도로 사용하게 되는데 "와인프레스 1904" 는 배나무(Pearwood)로 제작 되었습니다.

사각의 틀 정면에 적힌 [19. F.E.B 04.] 는 와인프레스의 제작 연도와 일자로

1804년 2월 19일 소유자 혹은 제작자가 결혼을 기념하여 제작하였다고 합니다.

정확한 제작 및 사용 장소에 대한 정보는 없지만 현재의 슬로베니아 지역에서 사용되었고

마지막 까지 그 지역의 와이너리에 보관되어 왔으며 2018년 한국에 들여오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와인프레스는 해체 되어 사각 목재 틀은 와인프레스보드로

가구용 상판재, 혹은 2차 가공 후 월판넬, 바닥재등의 용도로 다양하게 사용이 되었고

상단의 대형 빔들을 가구용 재료나 인테리어용 소재로 용도로 공급이 되었습니다.

와인프레스 스크류도 별도 부속으로 판매되며 고급 인테리어 오브제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온전한 형태로 남아 있는 와인프레스는 이제는 유럽 전역에서도 찾아 보기 힘들며

200년 이상 된 [와인프레스 1904] 는 그 자체로도 가치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Railway Transom

트랜섬(Transom)은

철도에 사용되는 침목으로 특히, 철도 교각에 사용되었던 부분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침목은 부후 방지를 위해 화학적 처리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트랜섬의 경우 비중이 높은 수종을 사용하여 화학적 처리 없이 그대로 사용하고 지면(땅)과 닿지 않는 부분에 사용이 되어 땅에 사용된 철도 침목에 비해 비교적 표면 상태가 양호하게 공급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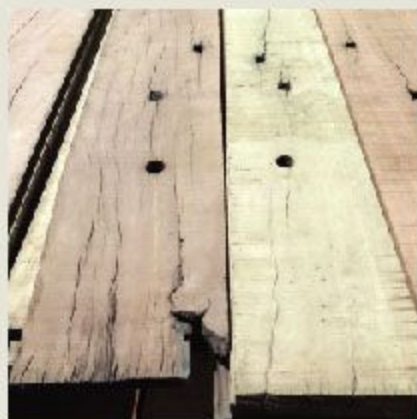
소재 그 자체로도 훌륭한 조경재나 가구재로 재사용이 가능하고 제재나 몰당의 2차 가공으로 고급음식점, 커피숍, 의류매장등의 빈티지스타일의 인테리어 내장재로 재가공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연적인 부후와 크랙, 스파이크가 박혔던 위치의 부식된 부분들은 오일등으로 표면 처리시 아름다운 무늬가 연출 됩니다.

빈티지 K패널 모던 (Morden)

트랜섬의 부식된 겉표면을 제재해 내고 속재를 활용하여
인테리어용 판넬로 가공한 월판넬(Wall panel)제품입니다.

표면은 대패 마감이나 샌딩 마감을 통해 화려한 색상이 나타나고
자연스러운 크랙과 스파이크가 박혀 자연스럽게 부식된 부분의 색상 변화로
빈티지하면서도 모던한 느낌의 인테리어 소재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Morden panel 규격

두께 : 12mm

폭 : 20~22cm

길이 : 2.1~2.3m



빈티지 K패널 오리지널 (Original)

트랜섬의 부식된 겉 표면을 그대로 활용해서 만든 제품으로 겉표면의 거친 면을 별다른 가공없이 그대로 사용합니다.

모던 판넬은 몰딩, 샌딩등의 마감 과정을 통해 비교적 균일한 상태로 공급 되지만 오리지널 판넬의 경우 표면의 상태에 따라 다소 불균일한 두께와 폭으로 공급 됩니다.

빈티지 K패널 모던 제품에 비해 공급량이 제한적입니다.



Original panel 규격

두께 : 12~15mm (두께편차있음)

폭 : 20~22cm

길이 : 2.1~2.3m



Application



Application



Application

